

장성에 쿠팡 ‘서브허브’ 들어선다...고용 창출 ‘신호탄’

150억 투자·450명 직고용...내달 개소 목표 지역농가 판로 확보 기회...지역경제 활성화

장성군이 쿠팡 물류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새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을 쐈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이하 CLS)와 ‘장성 서브허브’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홍용준 CLS대표, 이개호 국회의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서브허브(sub-hub)’는 물류센터에서 배송컴포드 상품을 보내는 과정 중

간에 거치는 물류시설이다. 쿠팡 측은 지난해 10월 광주첨단물류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 늘어난 호남권 주문량에 대응하기 위해 장성에 ‘서브허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장성 서브허브’가 건립되는 곳은 서삼면 용흥리 장성복합물류터미널이다. 쿠팡이 올해 2월 개소를 목표로 150억원을 투자해 바닥면적 합산 1만3천200여㎡(4천평) 규모 시설을 구축한다. 직원 450명도 직고용할 예정이다.

지역농가들은 쿠팡 오픈마켓 입점을 통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난 17일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와 ‘장성 서브허브’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홍용준 CLS 대표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해 전국단위 판로 확보의 기회를 갖는다.

CLS 측은 협약을 통해 ▲인력 채용 시 장성군민 최우선 고용 ▲장성지역

업체에 공사·용역 의뢰, 물품 구매 노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장성군은 ‘서브허브’가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펼친다.

홍용준 CLS 대표는 “장성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매입하고 전국단위 판로를 제공해 지역민 수익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주민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한중 군수는 “이번 투자협약이 청년 취업난 해결과 농산물 판로 확보라는 중요한 지역현안 해결에 불꽃을 터뜨릴 것”이라며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안전한 설 연휴” 여수시, 명절 종합대책 가동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비상대응 체계 유지

여수시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에 나섰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정기명 여수시장 주재 하에 ‘설 명절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재난·안전 ▲도로·교통 ▲관광지 불편 ▲생활민원 ▲보건·진료 ▲물가안정 등 6개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민생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명절 연휴 기간 7개 반 600여명 근무자로 구성된 종합상황실과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많은 관광객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종합상황실을 기준으로 교통대책반을 편성했으며, 주요 관광지에는 안내소를 운영해 관광 불편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귀성객·성모객을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4천154면) 무료 개방, 시내버스 연장·증회 운행, 실시간 교통상

황 모니터링 등의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보건·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응급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하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상황실도 비상 체계에 들어간다.



여수시가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설 명절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민생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일·고기·수산물 등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기명 시장은 “시민과 귀성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부서별 행정력을 집중해 종합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양시,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착수

오늘 매터재서 개도식...정밀 감식 후 유족 인도 예정

광양시가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에 착수했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21일 광양시 진상면 매터재(진상면 비평리 산116-2 3번지)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시작하는 개도식을 개최한다.

개도식에는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 이삼희 하동군 부군수, 박현용 여순사건위원회 진상규명과장, 김지선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선호 광양시 유족대표 등 시·군 관계자와 유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매터재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개도제와 유해 발굴 시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유해 발굴이 진행되는 매터재는 여순사건 당시 광양시 여순사건 희생자뿐 아니라 하동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등이 처형을 당한 장소로, 사건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형이 거의 변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유해 발굴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지난 10월28일 매터재 현장을 통해 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화순군, 새해 ‘1호 청렴주의보’ 발령

명절 전·후 불시 특별감찰 추진

화순군이 설 명절을 앞둔 17일 을사년 새해 ‘1호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선물·향음 수수 등의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

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설 명절을 대비해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공직자 청렴 캠페인을 펼치고, 카드뉴스 등을 통해 청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을 전후한 불시 특별감찰을 추진해 행동강령, 복무규정, 품위유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처리와 인허가 지연과 같은 소극적 업무행태도 단속할 예정이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명절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해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과 나누는 마음은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며 “다만,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의 선물 등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호 청렴주의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군-한국도시재생학회, 도시재생 세미나 성료

담양읍 거점시설 효율적 운영·사후관리 방향 모색

담양군은 “최근 담양읍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담양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인 담양 어울림센터에서 담양군 주최, (사)한국도시재생학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담양군 관계자, 학회 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전문가 그룹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담양읍 도시재생사업’은 담양읍 담양읍 담주리 일원 14만4천400㎡ 부지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4억원을 투입해 정주환경 개선, 주민주도 공동체 회복, 생태·녹지 공간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세미나는 김성민 공간재생과

장, 군 관계자, 김향집 광주대학교 교수(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와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그룹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현장답사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 거점시설 관리 방안 및 운영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

으로 진행됐다. 특히 종합토론에서는 김향집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을 비롯한 대학교수 및 도시재생 전문가 7인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 방향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이병호 담양군수는 “담양읍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토론에서 논의된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방향을 적극 활용하고 점진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훈 기자



보성군, 설 명절 모든 주민 30만원 지급

내달 21일까지 방문·신청

보성군은 20일 “모든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생 600 ‘보성사랑지원금’은 2025년 1월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부터 모야온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된 예산 총 112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사용 권장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신청·지급은 20일부터 2월21일까지 4주간이다. 특히 설 명절 전 지급을 희망하는 주민을 위해 20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단, 세대원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보성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어민과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액의 100% 확대 지급하기로 했으나 전남도와 22개 시·군,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김순호 구례군수가 최근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을 방문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베트남 화방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협약

지속 가능 인력 관리체계 구축

구례군은 “최근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례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

고, 베트남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구례군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농가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구례군과 화방군 간의 이번 협력은 단순한 인력난 해결을 넘어 양 지역 주민 간의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협약은 구례군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인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